

에이즈 감염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02년부터 매년 감염인·환자·그 가족을 대상으로 감염인 문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주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공모전에는 이순우(감염인·가명) 씨의 "10월 송정 바닷가에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윤천주(감염인·가명)의 "내 안에 갇힌 나를 자유롭게"(수필)과 김연(감염인·가명)의 "플랭크(시)"이 각각에는 김지훈의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수필)", 이영준(감염인·가명)의 "화장(火葬)(시)"이 각각 선정되었다. 2005년 문예공모전은 [www.postive.or.kr](http://www.pos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 10월 송정 바닷가에서

글 | 이 순 우 · 감염인·가명

**잊고만** 살 수 있다면, 아니 잊은 척 살아가던 감염인으로서의 내 현실은, 가을이 한층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한통의 전화로 완전히 되살아났다. 익숙한 전화번호. 하지만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중년 남자의 그것이었다.

"우리 미정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선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는군요."

불행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고 했던가. 어리석게도 나는 이런 비극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연습조차도 한 적이 없는 듯했다. 그저 멍하니 났이 나간 내 귀에 다시 그 남자의 음성이 이어졌다.

"저는 미정이 이모부입니다. 우리 미정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탁입니다만, 평소 우리 미정기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오십시오."

택시에서 내려 거의 날아갈 듯이 병원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도, 누군가가 내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안내데스크를 좌측으로 돌아 서너 개의 입원실과, 세면장을 통과하고 나가 육중한 아이보리색 중환자실의 출입문이 보였다. 그 앞에서 미정이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임이 느껴졌다.

환자 가족 대기실에서 그녀의 식구들과 잠시 인사를 마치고, 이미 면회 시간이 넘어버려 면회는 도저히 불가능하던 간호사에게 통사정을 했다. 대신 빨리 나와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뒤로 한 채 그녀의 병실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미정이는 중환자실 안에서도 특별히 격리되어 있었고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어서 밖에서라도 그녀의 모습이 제법 잘 보였다. 막상 하얀색 침대위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절대 약해지지도 흔들리지도 말자고 다짐했던 결심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미정아, 나 왔어. 오빠 왔는데 눈 좀 떠봐."

그녀의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까지 차고 있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나 곧 퇴원할건

데….”

바짝 마른 입술로 힘겹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나를 알아채곤 약한 미소까지 흘려주었다.

“알아. 곧 퇴원할거 아는데 그전에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바보. 옮기는… 누가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마. 진짜루 나 내일이면 일어날거야.”

“그럼 그래야지. 꼭 그렇게 될 거야.”

벌써 5년이였다. 한 감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정이는 늘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였다. 차갑게 느껴지는 걸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은 여리고 정도 많은 여자라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록소록 느낄 수 있었다. 시장을 보거나 어디 여행을 다녀올 때도 우리들을 위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꼭 챙겨오는 살가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도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 같기도 해. 하늘은 내게 무서운 병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덤으로 같이 주신 거 같거든.”

“난 너희들 몰라도 좋으니 내 병이나 나았으면 좋겠다.”

그랬었다.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깨를 치며 함께 웃곤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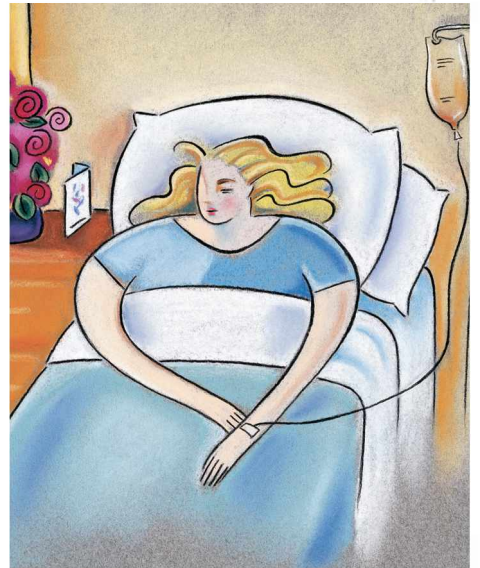
그런 미정이가 언젠가부터 자주 아프다고 말했었다. 혼자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실려 나오고 입퇴원도 반복했었다. 그럴 때마다 병문안이라도 시고 얼굴이라도 볼라치면, 미정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싱긋 웃음으로 넘기곤 했다. 나는 왜 그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를 앞에선 웃어주고,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아파했을 그녀를 떠올리자니, 나란 사람이 얼마나 무심한 놈인지 새삼 땅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토요일 낮. 면회시간이 끝나고 미정이가 존경하고 따랐던 N누나와 나는 담당의사를 찾아갔다. 의사의 첫마디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것만이 관건이라고 했다.

“신장과 간, 폐 등이 자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복수도 차오기 시작했구요. 겨우 숨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우리병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고는 정확하게 장담할 순 없



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상인보다 이겨낼 힘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총총히 사라지는 담당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불가항력이란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임을 절감했다.

창공은 높고, 어디선가 이제는 다 지고 말았을 나뭇잎의 향기가 어지럽게 내 코를 찔러왔다. 세상은 온통 울긋불긋한 또 다른 향연으로 축복 중인데, 오직 우리만이 하얀색 병원 건물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별과 전쟁 중이었다.

저녁이 되면서 그나마 희미하던 미정이의 의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 미정이에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이제 그만 세상과의 끈을 놓아도 된다고 했다. 옆에서 팔을 주무르거나, 고함을 질러보아도 그녀는 그저 자다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호 계속)